

이방인인가? 이웃인가? : 고려인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 관계에서 위협 인식의 매개 역할

정나리* · 조상희**

요약 본 연구는 통합위협이론과 간접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고려인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저출산과 지방 소멸 문제 속에서 한국과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이 깊은 고려인은 지역 활성화와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의 영향을 살펴보고, 위협 인식이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준사회적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반면, 대리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위협 인식을 감소시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대리 접촉의 효과는 위협 인식이 매개할 때만 유의하게 나타나, 접촉 유형에 따른 차이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간접 접촉이 편견 완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위협 인식이 그 효과를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과 다문화 정책 수립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다문화 수용성, 간접 접촉, 고려인 이주, 위협 인식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7 037925).

* 제1저자, 국립공주대, 관광경영학, 연구교수, nrjung43@kongju.ac.kr

** 교신저자, 국립공주대, 관광경영학, 교수, chosh@kongju.ac.kr

1.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원중 2021; 임태경 2021).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자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주민 특히 고려인이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한정훈 2020).

고려인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 후손으로, 경제적 기회와 문화적 정체성 회복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재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영술 2020; 장흔성 2020).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고려인을 유치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고려인 마을을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5.29; 한겨레 2024.02.20). 이러한 정책들은 고려인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보여준다.

고려인은 문화적 유사성과 역사적 연관성 덕분에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으며, 이는 타 외국인 이주민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고려인의 문화, 문화적 정체성, 언어 교육 및 적응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인의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강희진 2021; 권기배 2021; 홍정민·장은영 2022).

다문화 사회에서 다수 집단의 수용성은 소수 집단의 적응과 사회 통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Berry 1997; Pettigrew and Tropp 2006), 다문화 수용성 연구는 주로 다른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강영숙 외 2024; 공수연·백진아 2021; 남보영·홍이준 2021).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이은채 2022) 고려인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접촉은 직접 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완화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Schiappa et al, 2006). 준사회적 접촉은 미디어를 통해 외집단을 관찰하는 방식이며, 대리 접촉은 내집단 구성원이 외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방식이다(Schemer and Meltzer 2020). 미디어는 간접 접촉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매개체로, 외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amasubramanian 2011). 미디어가 외집단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간접 접촉을 통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될 수 있지만, 부정적 묘사는 오히려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Dixon 2008; Schiappa et al. 2006).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대중이 외집단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외집단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Mastro and Tukachinsky 2011).

그러나 간접 접촉이 무조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외집단에 대한 위협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협 인식은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Stephan and Stephan 2000; Riek et al, 2006). 스테판과 스테판(Stephan and Stephan 2000)의 통합 위협이론(Integrated threat theory)에 따르면, 외집단이 내집단의 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위협한다고 인식될 경우 이는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간접 접촉이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협 인식을 완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는지 분석하여 사회적 갈등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탐색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다문화 사회의 조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통합 및 다문화 정책 수립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1) 고려인 연구 동향

고려인은 19세기 중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 후손으로,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하며 경제적 기회와 역사적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재이주하고 있다(선봉규 2017). 고려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적 정체성 및 공동체 연구로, 고려인의 민족적 유대감과 자긍심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고광신·김형태 2011; 김경학 2015). 전형권·Yulia Yim (2006)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모국어를 한국어로 인식하고 민족적 애착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밝혔다.

둘째, 이주 동기와 마을 형성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을 중심으로 고려인의 재이주 동기와 정착 과정을 분석한다(김재기 2014; 임영상·정막래 2016). 김재기(2014)는 고려인의 주요 이주 동기가 경제적 이유임을 강조하며, 이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고려인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적응 과정 연구로, 자녀들의 언어 장벽과 학교생활 적응이 주요 쟁점이다(윤향희 2021). 이러한 연구는 고려인 자녀의 정착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고려인 연구는 문화적 정체성, 공동체 형성, 이주 동기,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고려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나 다문화 수용성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배영동 2023). 다수 집단의 수용성은 소수 집단의 적응과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Berry 1997; Pettigrew and Tropp 2006),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 완화와 사회적 통합의 핵심 요인이다(슈워츠 외 2010).

본 연구는 간접 접촉의 효과를 분석하여 고려인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확장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작용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주요 영향 요인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집단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로 간주된다(Rohner 1984; Kelley and Meyers 1992). 이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긍정적 감정, 적극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한 변수로, 이중 문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포용성이 강화된다(Baumert et al. 2024). 사회적 규범과 교육은 다문화 수용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니에토(Nieto 1992)와 가르시아와 춘(Garcia and Chun 2016)의 연구는 다문화 교육이 소수 민족과의 관계 형성과 긍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집단 간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 이론은 긍정적 접촉이 편견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고 설명하며, 페티그루와 트로프(Pettigrew and Tropp 2006)의 메타분석은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간접 접촉은 직접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집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Schiappa et al. 2006; Wright et al. 1997). 라마수브라마니안(Ramasubramanian 2011)은 미디어의 외집단 묘사 방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크리스토프(Christoph 2012)는 외집단을 개별적 인물로 묘사할 때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집단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증진하여 경제적, 문화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Alesina and La Ferrara 2005; Parekh 2001).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고려인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간접 접촉 이론과 사회적 영향

간접 접촉 이론은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집단 간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며, 물리적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편견 감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Allport 1954). 페티그루(Pettigrew 1998)는 간접 접촉이 직접 접촉과 유사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스미스 외(Smith et al. 2009)는 간접 접촉이 유의미한 사회적 통합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간접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기제 중 하나는 위협 인식의 감소이다(Wright et al. 1997). 스테판과 스테판(Stephan and Stephan 2000)의 통합위협이론에 따르면 외집단이 내집단의 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위협한다고 인식될 경우 편견과 배타적 태도가 증가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즉 외집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며, 이는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ottrell and Neuberg 2005).

특히 미디어는 간접 접촉의 핵심 경로로 작용하며 외집단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제공 방식이 집단 간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stro and Tukachinsky 2011).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된 외집단은 내집단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으며(Schiappa et al. 2006), 반대로 부정적인 프레임이 강화될 경우 위협 인식을 증가시켜 다문화 수용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Dixon 2008).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외집단과의 간접 접촉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미디어에서 외집단을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내집단 구성원의 외집단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amasubramanian 2011).

간접 접촉은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으로 나뉘며, 각각 미디어를 통한 관찰과 내집단 구성원의 외집단 상호작용 관찰로 정의된다(Schemer and Meltzer 2020). 시아파 외(Schiappa et al. 2006)는 긍정적으로 묘사된 외집단 캐릭터가 편견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마치오타 외(Mazziotta et al. 2011)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 협력 장면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을 입증했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수용자의 인식과 정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이는 물리적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Hicks et al. 2024).

간접 접촉은 대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에 대한 인식을 측정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는 탄 외(Tan et al. 1997)가 제안한 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접촉 빈도와 표상에 대한 묘사 및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며, 간접 접촉 효과가 단순한 노출 빈도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4) 위협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합위협이론의 관점

통합위협이론(Integrated threat theory)은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배타적 태도의 원인을 설명한다(Stephan and Stephan 2000). 전재은·박기나(2023)는 통합위협이론을 적용하여 위협을 현실적 위협, 상징적 위협, 사회 통합 위협, 안전 위협, 편견 위협, 그리고 이타적 위협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위협이 한국인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협 인식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은 감소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Callens et al. 2019; Riek et al. 2006). 란드만 외(Landmann et al. 2023)는 이주민에 대한 위협이 다문화 수용성을 감소시킨다고 실증하였으며, 브랜스컴 외(Branscombe et al. 1999)는 위협 인식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접 접촉을 통한 긍정적 경험은 위협 인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Wright et al. 1997). 미디어에서 외집단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수용자의 위협 인식이 줄

어 들 면 서 다 문 화 수 용 성 이 높 아 질 가 능 성 이 있 다(Dixon 2008; Schiappa et al, 2006). 즉 간접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는 외집단 정보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간접 접촉이 단순한 정보 노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수용자가 미디어 콘텐츠에서 접한 외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며, 위협 인식이 감소해야만 간접 접촉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Wright et al, 1997).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공정한 자원 분배, 외집단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이 위협 인식을 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Neuwirth and Bell 2024), 페티그루와 트로프(Pettigrew and Tropp 2006)는 집단 간 접촉 경험이 위협 인식을 완화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위협이론을 바탕으로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협 인식이 이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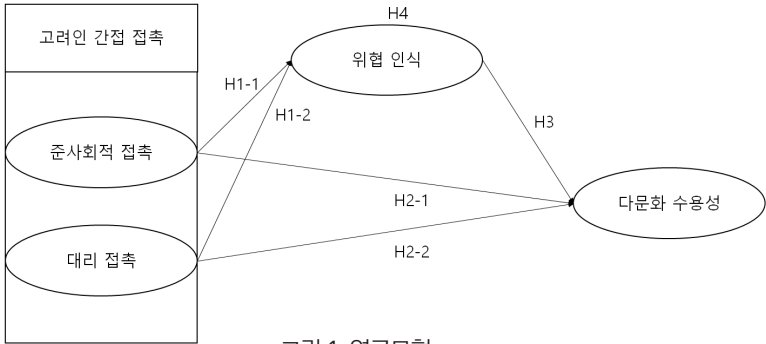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1) 간접 접촉이 위협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간접 접촉은 미디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Pettigrew 1998; Schiappa et al. 2006). 시아파 외(2006)는 긍정적인 미디어 묘사가 편견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라이트 외(Wright et al. 1997)는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의 관계만으로도 위협 인식이 줄어들 수 있음을 밝혔다. 헨셀(Henschel 2024)은 긍정적인 접촉이 유사한 외집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차 전이 효과(Secondary transfer effect)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고려인 간접 접촉이 긍정적일수록 위협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

1-1: 고려인 준사회적 접촉이 긍정적일수록 위협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

1-2: 고려인 대리 접촉이 긍정적일수록 위협 인식이 낮아질 것이다.

(2)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간접 접촉은 외집단과의 직접 상호작용 없이도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Pettigrew and Tropp 2006). 다문화 수용성은 집단 간 갈등 완화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필수 요소로 간접 접촉의 효과가 입증되었

다(Chen and Starosta 2000; Parekh 2001). 바그지 외(2019)는 상상된 접촉이 차별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으며, 오저 외(2021)는 간접 접촉이 다문화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접 접촉보다 강한 효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고려인 간접 접촉이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2-1: 고려인 준사회적 접촉이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2-2: 고려인 대리 접촉이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3) 위협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위협 인식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Stephan and Stephan 2000). 란드만 외(2019)는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감소한다고 밝혔으며, 램햄과 너지-토스제기(Lanham and Nagy-Tószegi 2024)는 접촉이 적은 환경에서 현실적 위협 인식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칼렌스 외(Callens et al. 2019)는 유럽에서 경제적·문화적 위협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을 낮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고려인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4)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

간접 접촉은 외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며, 위협 인식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Wright et al. 1997). 포슬론 외(2024)는 간접 접촉이 위협 인식을 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벨라스코 곤살레스 외(2008)는 상징적 위협이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매개하며, 위협 인식이 제한된 접촉 상황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고려인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을 각각 ‘미디어에 나타난 고려인 표상에 대한 주관식 인식’과 ‘미디어에 나타난 내집단과 외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Giles 2002; Horton and Wohl 1956; Schiappa et al. 2006). 이는 탄 외(1997)가 제안한 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접촉 빈도와 표상에 대한 묘사 및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각 5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는 남보영·홍이준(2021), 전소희·김은서(202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위협 인식은 스테판과 스테판(2000)의 통합위협이론에 따라 ‘고려인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내집단에게 가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 정의하였다. 현실적 위협, 상징적 위협, 사회 통합 위협, 안전 위협, 편견 위협, 그리고 이타적 위협의 6개 유형으로 구분된 측정 문항은 코트렐과 노이버그(Cottrell and Neuberg 2005), 란드만 외(2019), 전재은·박기나(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다문화 수용성은 ‘고려인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 대해 공존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Berry 1997; Pettigrew and Tropp 2006). 김경은·윤노아(2012)와 이기영·최혜경(2018)의 연구를 기반으로, 다문화 지향성과 자문화 지향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3문항씩 구성하였다. 자문화 지향성은 역코딩하여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 포함하였으며,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Google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고려인에 대한 간접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연구 대상자에 포함하기 위하여 유의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 첫 문항에 ‘고려인을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스크리닝 문항을 배치하여 간접 접촉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배제함으로써 연구의 핵심 변수를 포함하는 표본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인 간접 접촉 경험이 위협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응답자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총 339부의 응답을 수집한 후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초반에는 응답자들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해당 설명에서는 고려인이 19세기 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계 이민자 후손이며, 소련 해체 이후 일부가 경제적 기회와 역사적 연고를 이유로 한국으로 재이주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조사 문항에서 언급된 고려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와 AMO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 중 33.1%는 고려인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접촉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또한 직접 접촉 경험이 간접 접촉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기보다는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간접 접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24)

변수명 / 항목	빈도 (명)	비율 (%)	변수명 / 항목	빈도 (명)	비율 (%)
성별			월 소득수준		
남성	167	52.2	200만원 미만	33	10.3
여성	153	47.8	200만원대	38	11.9
			300만원대	102	31.9
			400만원대	98	30.6
			500만원 이상	49	15.3
연령대			거주지역		
20대	65	20.3	서울, 경기	123	38.4
30대	94	29.4	강원권	39	12.2
40대	107	33.4	충청권	47	14.7
50대 이상	54	16.9	호남권	47	14.7
			영남권	46	14.4
			제주도	11	3.4
			해외 및 기타	7	2.2
최종 학력			고려인 직접 접촉 경험 여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	9.7	예	106	33.1
전문대 재학/졸업	58	18.1	아니오	214	66.9
대학교 재학/졸업	196	61.3			
대학원 재학 이상	35	10.9			

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준사회적 접촉, 대리 접촉, 위협 인식,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hi^2=377.521$, $df=203$, $\chi^2/df=1.860$, $p<0.001$, $NFI=0.956$, $CFI=0.979$, $TLI=0.976$, $RMSEA=0.052$ 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 도구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측정 도구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0.8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0.7 이상일 경우 해당 척도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의 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명 (Cronbach's α)	측정 문항	표준화 요인 적재량	
고려인 간접 접촉	준사회적 접촉 (0.958)	TV 프로그램에서 고려인은 매력적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았다	0.911
		뉴스에서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0.889
		유튜브에서 접한 고려인 관련 콘텐츠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0.903
		공익광고나 홍보영상에서 고려인은 협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0.893
		TV 프로그램에서 고려인의 삶은 긍정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았다	0.929
	대리 접촉 (0.940)	뉴스에서 한국인과 고려인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0.882
		SNS에서 한국인과 고려인이 협력하는 사례가 자주 공유된다	0.886
		공익광고에서 한국인과 고려인이 함께 일하거나 교류하는 모습이 협력적으로 그려진다	0.865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인과 고려인이 협력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는 사례가 강조된다	0.854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인과 고려인이 상호작용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0.871
위협 인식 (0.971)	고려인은 도덕과 종교 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이 한국인과 상당히 다르다	0.896	
	고려인은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0.904	
	고려인의 이주는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	0.931	
	고려인의 이주는 한국 사회 내 갈등을 발생시킨다	0.924	
	고려인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0.916	
	고려인의 이주로 인해 기존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0.954	
다문화 수용성 (0.959)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0.874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해진다	0.882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면 한국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0.885	

다양한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	0.887
단일민족혈통을 유지해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	0.894
단일민족국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0.932

- 1) 모든 측정 문항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0.001의 수준에서 유의함($p < 0.001$).
- 2)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 statistics): $\chi^2=377.521$, $df=203$, $\chi^2/df=1.860$, $p < 0.001$, $NFI=0.956$, $CFI=0.979$, $TLI=0.976$, and $RMSEA=0.052$.
- 3)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and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4) 역재점 문항은 Ⓜ로 표기하였음.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잠재요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검토하였다. 잠재요인 신뢰도(CR)는 모두 0.9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각 상관계수 제곱 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타당성 검증

변수명	측정 문항수	CR	(1)	(2)	(3)	(4)
(1) 준사회적 접촉	5	0.958	0.819a	0.581b	-0.671	0.652
(2) 대리 접촉	5	0.940	0.338c	0.760	-0.662	0.532
(3) 위협 인식	6	0.971	-0.450	-0.438	0.848	0.640
(4) 다문화 수용성	6	0.959	0.425	0.283	0.410	0.797

- 1) CR(개념 신뢰도) = Composite Reliabilities.
- 2) a 우측 하향 대각선(굵은 숫자)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나타냄.
- 3) b 우측 하향 대각선(굵은 숫자) 기준 오른쪽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나타냄.
- 4) c 우측 하향 대각선(굵은 숫자) 기준 왼쪽은 상관계수 제곱 값(r^2)을 나타냄.

3) 가설의 검증

(1) 경로분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준사회적 접촉, 대리 접촉, 위협 인식,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hi^2=377.521$, $df=203$, $\chi^2/df=1.860$, $p<0.001$, $NFI=0.956$, $CFI=0.979$, $TLI=0.976$, $RMSEA=0.052$ 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사회적 접촉($\beta=-0.432$, $t=-8.218$, $p<0.001$)과 대리 접촉($\beta=-0.428$, $t=-8.016$, $p<0.001$)은 모두 위협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준사회적 접촉($\beta=0.407$, $t=6.427$, $p<0.001$)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위협 인식($\beta=-0.308$, $t=-4.503$, $p<0.001$)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4. 가설의 검증

가설	경로		표준화경로 계수(β)	t-값	채택 여부	
1-1	준사회적 접촉	→	위협 인식	-0.432	-8.218***	채택
1-2	대리 접촉	→		-0.428	-8.016***	채택
2-1	준사회적 접촉	→	다문화 수용성	0.407	6.427***	채택
2-2	대리 접촉	→		0.095	1.526	기각
3	위협 인식	→	다문화 수용성	-0.308	-4.503***	채택

- 1) *** $p<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함.
- 2)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 statistics): $\chi^2=377.521$, $df=203$, $\chi^2/df=1.860$, $p<0.001$, $NFI=0.956$, $CFI=0.979$, $TLI=0.976$, and $RMSEA=0.052$.
- 3)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and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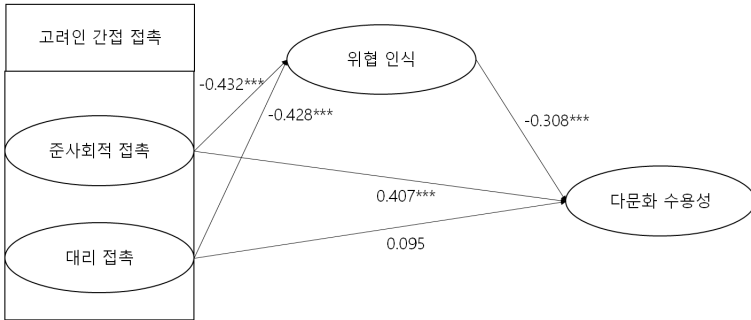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경로 계수

(2) 매개효과 검증 결과

고려인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사이에서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준사회적 접촉, 대리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사회적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사이에서 위협 인식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며, 대리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사이에서 위협 인식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5.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준사회적 접촉 → 위협 인식 → 다문화 수용성	.121	.035	.059~.200
대리 접촉 → 위협 인식 → 다문화 수용성	.132	.034	.071~.200

V. 결론

본 연구는 고려인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협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 모두 위협 인식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된 외집단이 위협 인식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 시아파 외(2006)와 라이트 외(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외집단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접촉이 편견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간접 접촉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둘째, 준사회적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리 접촉은 위협 인식을 매개로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히 내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어렵고, 외집단에 대한 기존 태도 및 위협 인식이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대리 접촉이 특정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김찬중(2020)의 연구와 맥락을 함께한다. 김찬중(2020)은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다룬 뉴스 보도가 국민 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외집단에 대한 공포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대리 접촉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외집단에 대한 기존 태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리 접촉이 직접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지 않고 위협 인식을 경유해야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리 접촉의 효과가 단순한 접촉 자체보다 접촉의 방식과 맥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위협 인식은 다문화 수용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외집단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위협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을 낮춘다는 통합위협 이론(Stephan and Stephan 2000)과 기존 연구(Cottrell and Neuberg 2005; Landmann et al. 2023)를 지지하는 결과다. 이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단순한 태도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 사회적 수용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협 인식을 완화하는 전략이 다문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넷째, 위협 인식은 간접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 간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였다. 준사회적 접촉은 위협 인식을 부분적으로 매개했으며, 대리 접촉은 위협 인식을 완전히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간접 접촉이 위협 인식을 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포슬론 외 2024; 황현진 외 2024).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간접 접촉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접촉 방식과 맥락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간접 접촉이 반드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 인식이라는 심리적 변인을 통해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며 통합위협이론(Stephan and Stephan 2000)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직접 접촉의 효과를 강조한 반면,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이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의 차별적 효과를 규명하여 간접 접촉 이론을 구체화하였다. 준사회적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대리 접촉은 위협 인식을 매개할 때만 효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간접 접촉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연구하기보다 접촉 방식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준사회적 접촉이 대리 접촉보다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 외집단에 대한 직접 관찰(준사회적 접촉)이 내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 관찰(대리 접촉)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리 접촉의 제한적 효과와 부정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리 접촉이 위협 인식을 매개하지 않고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대리 접촉이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내집단 정체성 수준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책 및 미디어 콘텐츠 설계 시 대리 접촉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외집단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간접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접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준사회적 접촉을 활성화하는 콘텐츠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 완화와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뉴스, 드라마 등에서 고려인을 긍정적이고 현실감 있게 묘사하는 전략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TV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리 접촉 콘텐츠는 협력과 공존을 강조하는 긍정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리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위협 인식을 매개할 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는 대리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될 때 효과가 극대화됨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적으로 간접 접촉 프로그램과 공공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는 다문화 공익광고, 교육 프로그램,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려인의 긍정적 기여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적 참여와 교류를 통해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TV,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간접 접촉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매체별 간접 접촉의 특성과 효과를 구분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교신: 조상희(국립공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chosh@kongju.ac.kr)

Correspondence: Sang Hee Cho(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chosh@kongju.ac.kr)

2025.01.15 접수, 2025.01.21 심사, 2025.02.18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영숙 외, 2024,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도민의 위협인식 매개효과 검증, 한국범죄심리연구, 20(2), 5-20.
- 강희진, 2021, 재외 한인문학에 나타난 트랜스내셔널 상상 - 중아시아 고려인문학과 재중 조선인문학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37, 121-151.
- 고광신·김형태, 2011,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회와사회 복지, (15), 45-84.
- 공수연·백진아, 2021, 대학생의 국민정체성, 다문화수용성이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87-110.
- 권기배, 2021, 유라시아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연구: 1990년대 이후 연해주 고려인의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3(1), 345-368.
- 김경은·윤노아, 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1), 123-140.
- 김경학, 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가족유형의 성격, 디아스포라 연구, 9(2), 37-67.
- 김영술, 2020, 국내 거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 연구, 재외한인연구, (51), 31-68.
- 김원중, 2021,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입법 개선 방안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1(1), 147-177.
- 김재기, 2014,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32), 139-163.
- 김찬중, 2020, 외국인 이주민 관련 긍정적 뉴스 보도가 부정적 태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2), 50-92.
- 남보영·홍이준, 2021,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81-208.
- 배영동, 2023, 카자흐스탄 한인 디아스포라 음식의 문화적변과 혼종성-‘꼬끄달라’ 마을 고려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77), 119-162.
- 선봉규,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과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 동포 자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2), 803-830.
- 연합뉴스, 2023.05.29, 이주외국인, 인구감소 해법 될까?...“그렇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124800054>.
- 윤향희, 2021, 고려인 자녀의 국제 이주에 따른 한국 생활적응 지원방안 연구, 인문사회21, 12(1), 2405-2418.

- 이기영·최혜경, 2018, 민족정체성과 통일 의식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의 매개효과: 한 국거주 내국민과 미국거주 해외동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2(1), 107-133.
- 이은채, 202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 사회*, 69, 127-161.
- 임영상·정막래, 2016, 한국 속의 러시아: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2), 275-295.
- 임태경, 2021,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 유입의 효과성 분석-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8(3), 73-94.
- 장훈성, 2020,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 대응 방안: 경상북도 다문화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예학*, 43, 163-175.
- 전소희·김은서, 2023,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 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2), 179-206.
- 전재은·박기나, 2023, 한국인의 난민신청자 (asylum seeker) 에 대한 태도-통합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7(1), 145-195.
- 전형권·Yulia Yim, 2006,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정책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정체성-고려인 설 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1(2), 351-380.
- 한겨레, 2024.02.20, 고려인 76명 제천 이주...올해 고려인 300명 유치 목표,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29135>.
- 한정훈, 2020, 이주민 공동체의 정착 공간과 얽히는 시선들: 광주 고려인 마을을 대상으로, *실 천민속학연구*, 35, 471-513.
- 홍정민·장은영, 2022, 국내 거주 고려인 아동의 정체성과 어울림 양상: 충남 A 초등학교를 중 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4), 111-138.
- 황현진 외, 2024, 외국 이주민에 관한 직·간접 접촉이 지각된 위협 인식에 미치는 영향: 팬데 믹 시기 배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4(3), 133-166.
- Alesina, A. and E. La Ferrara, 2005,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3(3), 762-800.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Google Scholar, 2, 59-82.
- Bagci, S. C. et al., 2019, Imagined Contact Facilitates Acculturation, Sometimes: Contradicting Evidence from Two Sociocultural Contex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5(4), 539-552.
- Baumert, J. et al., 2024, Cultural Identity and the Academic, Soci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3(2), 294-31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ranscombe, N. R. et al., 1999, The Context and Content of Social Identity Threat. In N. Ellemers et al.(Eds.),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Content*. Hoboken: Blackwell publishing, 35-58.
- Callens, M. S. et al., 2019, Contact, Perceived Threat, and Attitudes Toward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Evidence from a Majority and Minority Perspective in Luxembourg.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0(2), 285-310.
- Chen, G. M. and W. J. Starosta,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Christoph, V., 2012, The Role of the Mass Media in the Integration of Migrants. *Mind, Brain, and Education*, 6(2), 97-107.
- Cottrell, C. A. and S. L. Neuberg, 2005,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Groups: A Sociofunctional Threat-Based Approach to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770-789.
- Dixon, T. L., 2008, Network News and Racial Beliefs: Exploring the Connection Between National Television News Exposure and Stereotypical Perceptions of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cation*, 58(2), 321-337.
- Garcia, C. and H. Chun, 2016,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and Teacher Expectations for Latino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4(3), 173-187.
- Giles, D. C., 2002, Parasocial Inter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Model for Future Research. *Media Psychology*, 4(3), 279-305.
- Henschel, N. T., 2024, The Negative Secondary Transfer Effect: Underlying Processe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ät Bremen.
- Hicks, E. et al., 2024, Direct Versus Indirect Contact: A Naturalistic Experiment in Teaching Multicultural Competenc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in Psychology*.
- Horton, D. and R. Wohl,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Observations on Intimacy at a Distance. *Psychiatry*, 19(3), 215-229.
- Kelley, C. and J. E. Meyers, 1992,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National Computer Systems*.
- Landmann, H. et al., 2023, Context Matters: Social Context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Indirect Intergroup Contact and Attitudes Toward Refugees. *Social Psychology*, 53(6), 341-356.

- Lanham, V. C. and C. Nagy-Tószegi, 2024, Attitudes Toward Ethnic Minorities Among Thai Students in Chiang Mai, Thailand. *Szociális Szemle*, 17(1), 26-43.
- Mastro, D. and R. Tukachinsky, 2011, The Influence of Exemplar versus Prototype-based Media Primes on Racial/Ethnic Evalua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61(5), 916-937.
- Mazziotta, A. et al., 2011, Vicarious Intergroup Contact Effects: Applying Social-Cognitive Theory to Intergroup Contact Research.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2), 255-274.
- Neuwirth, L. S. and J. Bell, 2024, Persistent Environmental Lead Exposures Disrupting Black Children's Neuro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Trajectories: An Under-Recognized ACE in the Hole. *Journal for Multicultural Education*, 18(3), 302-316.
- Nieto, S., 1992, *Affirming Diversity: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Longman, 10 Bank Street, White Plains, NY 10606.
- Ozer, S. et al., 2021, Investigating Direct and Indirect Globalization-Based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4, 155-167.
- Parekh, B., 2001,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Ethnicities*, 1(1), 109-115.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ettigrew, T. F. and L. R. Tropp,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oslon, X. D. et al., 2024, Threat Mediates the Effect of Perceived Anti-Prejudice Social Norms on Adolescents' Preferences for Immigrants'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2, 102042.
- Ramasubramanian, S., 2011, The Impact of Stereotypical Versus Counterstereotypical Media Exemplars on Racial Attitudes, Causal Attributions, and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38(4), 497-516.
- Riek, B. M. et al., 2006, Intergroup Threat and Outgroup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336-353.
- Rohner, R. P., 1984, Toward a Conception of Culture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2), 111-138.
- Schemer, C. and C. E. Meltzer, 2020, The Impact of Negative Parasocial and Vicarious Contact with Refugees in the Media on Attitudes toward Refugee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23(2), 230-248.

- Schiappa, E. et al., 2006, Can One TV Show Make a Difference? A Will & Grace and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Journal of Homosexuality*, 51(4), 15-37.
- Schwartz, S. J. et al., 2010,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5(4), 237.
- Smith, S. J. et al., 2009, The Effects of Contact on Sexual Prejudice: A Meta-Analysis. *Sex Roles*, 61, 178-191.
- Stephan, W. G. and C. W. Stephan,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S. Oskamp(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3-45.
- Tan, A. et al., 1997, Native American Stereotypes, TV Portrayals, and Personal Conta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265-284.
- Velasco González, K. et al., 2008, Prejudice Towards Muslims in the Netherlands: Testing Integrated Threat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4), 667-685.
- Wright, S. C. et al.,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s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73-90.

Stranger or Neighbor? :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Thre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Contact with Koryoin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Na Ri Jung* · Sang Hee Cho**

Abstract_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direct contact with Koryoin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pplying integrated threat theory and the indirect contact hypothesis while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threat. Koryoin, with cultural and historical ties to Korea, are considered a potential solution to regional depopulation. Findings show that parasocial contact directly enhances multicultural acceptance, with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threat. In contrast, vicarious contact improves multicultural acceptance only indirectly by reducing perceived threat. Thi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indirect contact varies by type and is significant only when mediated by perceived threat. This study highlights indirect contact as a means to reduce prejudice and promote social integration while offering insights for fostering positive perceptions of Koryoin and guiding multicultural policy development.

Keywords_Multicultural Acceptance, Indirect Contact, Koryoin Immigration, Perceived Threat

* First-Auth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Professor, nrjung43@kongju.ac.kr

** Corresponding Auth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Professor, chosh@kongju.ac.kr